

우즈 컴백 & 램 랭킹1위 등극 '관전포인트'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26일 개막... 최경주·김시우·배상문 등 한국 선수 출격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약 1년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복귀전을 치른다. 무서운 상승세의 존 램(스페인)이 새로운 톱랭커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토리파인스 골프장(파72·7699야드)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6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우즈는 지난해 이 대회 1라운드에서 무려 4오버파로 부진, 예선 탈락했다.

이어 열린 유러피언 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 참가했다가 2라운드를 앞두고 허리 부상이 재발해 기권했다.

이후 네 번째 허리 수술을 받고 또 다시 긴 재활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이벤트 대회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을 통해 필드에 복귀, 공동 9위를 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무엇보다 통증 없이 대회를 마쳤다는 게 고무작이었다.

효과만 드라이버를 날리며 건강을 확인했다.

우즈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하며 정규 투어로 컴백한다.

복귀 무대가 통산 7승을 쓸어 담은 토리 파인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우즈는 패트리 리드, 찰리 호프먼(이상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세계랭킹 2위 존 램(사진왼쪽부터)

미국)와 조를 이뤄 티업한다. 세계랭킹 647위의 우즈를 23위, 24위 선수와 조편성하며 황제 예우를 했다. 이번 대회는 우즈의 복귀만큼이나 존 램의 세계랭킹 1위 등극에도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램은 디펜딩 챔피언이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PGA 투어와 유러피언 투어에서 2승씩, 총 4승을 거뒀다.

최근 1년 동안 27개 대회에서 16차례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랭킹 46위에서 어느덧 2위에 자리했다. 이번 주 대회 2연패에 성공하면 48주간 1위를 지키고 있는 더스틴 존슨(미국)을 밀어내고 1위에 오르게 된다. 램은 제이슨 데이(호주·14위), 브랜트 스니더커(미국·65위)와 함께 경기를 시작한다. 랭킹 5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6위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7위 리키 파울러(미국) 등도 우승에 도전한다. 2015 타이틀을 획득한 데이도 3년 만의 정상 탈환과 함께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한국 선수 중에는 2016년 준우승을 한 '발명' 최경주(48·SK텔레콤)가 선봉에 선다. C대한봉운의 한술밥을 먹게 된 김시우(23), 강성훈(31), 김민휘(26)를 비롯해 배상문(32)이 출격한다. /뉴시스

김광석 유작 음반 '가객' 22년 만에 한정판 LP로

고(故) 김광석의 유작 레코딩 '부치지 않은 편지'가 수록된 음반 '가객(歌客)'이 발매 22년 만에 처음 한정판 LP로 나온다고 페이퍼 크리에이티브가 23일 밝혔다.



'가객'은 1996년 말 그 해 초 세상을 떠난 김광석이 남긴 유작 녹음과 그를 그리워하는 친구들의 노래가 실린 앨범으로, '부치지 않은 편지'라는 부제를 달고 세상에 빛을 봤다.

정호승의 시(詩)와 백창우의 가사(歌詞)가 지닌 격조(格調)와 대중음악사의 아픈 상흔(傷痕)으로 기억되는 김광석의 마지막 유작 녹음 참여 뮤지션들의 울분을 담은 절창이 만난 최고의 트리뷰트(tribute) 앨범으로 평가 받는다.

김광석은 세상을 떠나기 전 백창우와 함께 '노래로 만나는 시(詩)'라는 음반을 준비 중이었다.

1995년 가을 정호승 시인의 시에 백창우가 곡을 붙인 '부치지 않은 편지'와 백창우 작사·작곡의 '어머니'라는 두 곡을 녹음했다. 그런데 이 중 '어머니'는 워낙 상태가 안 좋아 지워버리고 '부치지 않은 편지'만 보관했다.

'가객' 앨범은 김광석이 사후에 가객으로 불리게 된 연유가 된 앨범이기도 하다.

이 앨범의 기획자이자, 낮은 곳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보낸 백창우는 '김광석은 우리와 한 시대에 태어나 잠깐 만나고 다른 세상으로 떠났다. 그러나 문득문득 소용돌이치는 그에 대한 그리움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철 페이퍼 크리에이티브 대표는 "2017년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아픈 상흔으로 회자되는 김광석의 석연치 않은 그의 영면(冥殿)을 뒤로 한 채, 떠나간 이를 기억해야 하는 슬픔도 때론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됨을 알게 됐다면서 "끝나지 않은 그의 노래와 생명력을 한정판 LP(Vinyl)에 담아내고자 하는 작은 시도를 해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돌풍 넘어 태풍' 정현, 샌드그렌 완파... 호주오픈 4강 진출

완벽한 경기력... 26일 4강

정현(22·한체대·삼성증권 후원·58위)이 테니스 샌드그렌(27·미국·97위)을 완파하고 호주오픈 4강에 올라 파란을 이어나갔다.

정현은 24일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펼쳐진 '호주오픈'(총상금 5500만 호주달러·약 463억원) 8강전에서 샌드그렌을 상대로 3-0(6-4 7-6(7-5) 6-3)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회 돌풍의 두 선수가 4강 길목에서 만났다.

세계랭킹 4위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에 이어 자신의 우상인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14위)를 꺾은 정현은 한국 선수 최초로 그랜드슬램 대회 8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메이저대회 무승의 샌드그렌도 이번 대회 스탠 바브리크(스위스·8위), 도미니크 팀(오스트리아·5위) 등을 꺾으며 반란에 반란을 거듭한 끝에 8강 무대를 밟았다. 어느 선수가 돌풍을 넘어 태풍급 파란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현은 한 수 위의 기량을 자랑으로 샌드그렌을 2시간 28분 만에 제압했다.

3경기 연속 센터 코트인 로드 레이버에 선 정현은 이번 대회 처음으로 1만명 넘는 만원 관중 앞에 선 샌드그렌보다 여유가 있었다.

1세트부터 샌드그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강점인 포핸드에서 실수가 나오며 위기를 자초했다.

정현이 3번째 상대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한 뒤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 3-1로 앞섰다.

서비스 게임을 차례로 주고받은 정현은 5-4에서 상대의 잇단 실수를 이끌어내며 러브 게임으로 완벽하게 1세트를 마무리했다.

2세트 들어서는 샌드그렌의 강서브와 파감한 네트 플레이에 고전했다.

두 선수는 상대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접전을 펼쳤다.

3-5로 뒤진 가운데 정현이 듀스 끝에 샌드그렌의 서비스 게임을 가져온 뒤 자신의 게임을 지켜 동점을 만들었다.



완벽한 경기력으로 6-6을 만들며 타이브레이크까지 끌고 간 정현은 긴장감을 극복하고 2세트까지 파했다. 3세트는 수월하게 진행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샌드그렌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밤식 또한 잦아졌다. 정현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대를 공략,

6-3으로 3세트를 가져오며 자신의 메이저 대회 첫 4강 진출을 확정했다. 정현은 로저 페더러(스위스·2위)와 토마스 베르디흐(체코·20위)의 승자와 4강에서 맞붙는다. 정현의 4강전은 28일 오후 5시30분으로 예정됐다. /뉴시스

영화 '신과 함께' 1364만명 ↑ ... 역대 흥행 3위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이 역대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신과 함께-죄와 벌'은 전날 전국 639개관에서 2033회 상영, 4만19604명(박스오피스 4위)을 추가, 누적 관객수 1364만12079명(누적 매출액 1035억원)을 기록해 '아바타'(1362만명)를 제치고 역대 국내 박스오피스 세 번째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신과 함께-죄와 벌'보다 많은 관객이 본 작품은 '명량'(1761만명)과 '국제시장'(1425만명) 두 편이다.

이번 작품은 미녀는 괴로워(2006) '국가대표'(2009) 등을 연출한 김용화 감독의 새 영화다.

주호민 작가가 2010~2012년 내놓은 동명 웹툰이 원작으로, 화재 현장에서 어린 아이를 구하고 목숨을 잃은 소방관 '김지훈'이 저승으로 가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하정우·채태현·주지훈·김향기·이정재 등이 출연했다. 총 제작비로 약 400억원이 투입됐으며, 2부작으로 제작돼 속편은 올해 여름 개봉할 예정이다.

한편 23일 박스오피스 순위는 1위 '그것만이 내 세상'(10만 3348명, 누적 111만명), 2위 '메이즈 러너:데스 큐어'(9만 2067명, 146만명), 3위 '코코'(7만2958명, 194만명), 5위 '1987'(4만1951명, 677만명) 순이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